

그 교회와 오레곤 새로운교회

지난 주 방문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9년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6년이 되었다. 그 6년 동안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곳 오레곤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동안 시간은 지나갔고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9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다. 그러는 동안 3개월 전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9주년 창립 기념일에는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성도들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2대 담임목사님과 운영이사회의 배려의 연락이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이 기뻐했다 그러나 떠난 교회에 다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첫마디에 간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때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른 것인지조차도 모르게 갑자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새벽 4시에 공항으로 향하며 한쪽은 두근대는 가슴으로 또 한쪽은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날 밤 2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 번 떠난 교회를 돌아보지 말고 기도만 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어색했지만 금방 6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힘을 모아 헌당한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지나간 힘 들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격만이 나의 가슴에 쌓여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데, 9년 전 그 교회를 시작할 때 나의 가족과 하나님만 아시는 어려움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마다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나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 중 한가지인 남가주 새소망 교회의 시작이 궁극함으로 아직도 무겁게 있을 때 이번에 방문을 통하여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놀라운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일들 중 큰 한 쪽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느끼게 된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섬기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9년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나의 생각과 실력에만 치우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믿음 없는 마음을 회개했다. 결국 목회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오레곤 새로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2년 반 전에 우리교회를 세우셨다. 처음에는 떨떠름한 생각이 많았다. 교회 개척을 위하여 땀땀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오레곤 새로운교회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본다. 나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 교회를 새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확신한다. 교회는 어느 목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시작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얻을 그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지난 주말은 나에게서 축복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한 여기나 저기나 만나게 하신 정말 좋고 좋은 성도들 때문이다.